논어 13편 자로 19장 · 원문·풀이

樊遲問仁。子曰：「居處恭，執事敬，與人忠。雖之夷狄，不可棄也。」

독음 · 번지문인 자왈 거처공 집사경 여인충 수지이적 불가기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평소에는 공손하고 일에는 경건하며 사람에게 성실하라. 낯선 나라에 가더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태도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樊 울 번 번 / 遲 늦을 지 지 / 問 물을 문 문 / 仁 어질 인 인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居 살 거 거 / 處 살 처 처

恭 공손할 공 공 / 執 잡을 집 집 / 事 일 사 사 / 敬 공경할 경 경

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人 사람 인 / 忠 충성 충 충 / 雖 비록 수 수

之 갈 지 / 夷 동쪽 오랑캐 이 이 / 狄 북방 오랑캐 적 적 / 不 아닐 불

可 옳을 가 가 / 棄 버릴 기 기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